An abstract painting featuring large, expressive brushstrokes in various shades of blue and orange. The blue strokes are thick and layered, creating a sense of depth and texture. The orange background is more fluid and blended, with some darker, swirling patterns. The overall composition is dynamic and emotional.

우리에게 블루는 무슨 의미일까? 과거의 나에게 블루는 시원함과 명상적 평온함이었지만, 어느새 현대인의 침잠하는 마음과 슬픔을 반영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듯 블루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슬픔, 우울, 고난, 혹은 그것들 모두를 쓸어버릴 사이다 같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Color project_01. Blue



VUTTONS



회사원 h 씨는 직장상사의 갈굼과 폭행으로 상사를 고발하고
말았다. 회사에서 잘릴 수 없었던 h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상
사를 신고한 것이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던 h씨의 증거자료들..
그러나 상사의 시아버님은 이사장단이었고 결국 회사를 나온
것은 h씨였다. h씨는 억울함에 국민신문고를 선택한다. 그리
나 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회사 기밀을 말해버린 h씨를 구속한
다. h씨는 억울함에 자살을 결심한다. '조금만 더 참았어야
지...'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렸다. 겁이 많았던 h씨는 자살시
도를 실패한 채로 정신병원을 들어가고 몇 해 간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를 받으며 법정 싸움을 했던 h씨. 결국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광광 흐르는 눈물과 말할
수 없는 난도질당한 마음뿐이었다. 그를 도와주는 것은 크리
미한 음료들과 케익 같은 기억들 밖에 없었다. 재앙은 카페의
크림들로 덮일 수 있을까?

Creamy Catastrophe
&
VUTTONS

크림 같은 재앙들의 기억(Creamy-catastrophe)

작업은 나의 기억 속 트라우마를 잠재우고 그것의 이미지를 보다 다른 기억의 이미지로 대체함으로써 스스로를 끌어안아주는 과정이다. 그것은 때로 트라우마의 감각을 시각적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되곤 한다. 여기에 주로 해일이나 큰 파도, 오로라, 운석 등 재해의 이미지와 그것 속에 우두커니 존재하는 인간 신체가 비틀린 채로 존재한다. 이것은 지난날의 나의 트라우마 속 나의 자화상이기도 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고독과 마음 속 어려움의 시각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은 죽음의 공포로서의 물, 정화적 매체나 시각적 쾌로서의 물의 이미지, 그리고 거대한 자연풍경이미지나, 나의 마음 내면의 나약한 인간신체의 자화상드로잉으로 표현된다.

나는 2017~19년 군 시절에 장교생활을 하였는데, 이때 받은 큰마음의 상처로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겪었다. 이때 누워있던 내게 온몸에 물이 덮치는 듯한 환상 속에 허우적대는 경험을 하였고 지금까지 나에게 물과 나약한 자화상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 2017년 이전의 그림 속 물 이미지가 내게 평안과 안식, 생명의 충만함 이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의 물이 되었다. 다만, 그때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에도 물의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렇게 나에게 물과 자연 풍경의 이미지는 죽음과 삶, 시각적 쾌로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게 되었다.

정신과 입원 시에 받았던 충격이나 상처 입은 나의 감정적 조각들을 추스르는데 2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던 드로잉이나 작은 스케치들을, 그때의 기억과 함께 비로소 다시 꺼내어, '시각적 위로의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은 내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지나간 감정과 감각은 기억 속에서 다듬어지고, 비유로서 남아있게 되었고,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건이 아닌, 재해와 재앙의 이미지 혹은 거대한 자연 속 풍경(물감을 두텁게 짓이겨 바른 파도, 노란 빛의 사람, 푸른 색 혹은 붉은 색의 배경, 폭발하는 듯한 원의 형상 등)에 비틀어진 신체의 병치하는 이미지로 상징화되어 표출된다.

나는 이러한 상징화된 이미지를 '크리미-카타스트로피(creamy-catastrophe)'라고 명명하고 싶다. 크리미-카타스트로피들은, 내게 이전의 리얼했던 재앙의 기억을 보다 부드러운 이미지로 덮어씌워내 주는 매개체다. 나는 크림 같은 재앙의 이미지가 실제로 마주했던 재앙 같은 상황의 기억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점차 화려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이전에 내게 남았던 상처의 기억이 완화된 이미지로 대체되길 희망한다.

변화하는 감정과 기억의 수용과 흉터로서의 그림

어떠한 사건을 그림과 말로서 서술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충격을 받고 바로 직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 할지도 모른 채 우두망찰할 뿐이다. 찢어진 마음을 어느 정도 기워내고, 썩은 감정 조직들에 새살이 돋을 즈음에, 나는 그것의 흉터들을 화면 밖으로 조금씩 열기설기 조작거려본다. 그것은 아주 작고 어눌한 말투의 불평과 분노였지만, 점점 그 틈은 커지고 분노는 쏟아져 나의 마음을 뚫고 나왔다. 한참의 불들을 쏟아낸 다음에서야 나오는 마음 속 새살. 그것은 처음에 타성적인 체념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체적 수용을 가능케 했다. 주체적인 수용이란 나 스스로가 나올 수 없는 기억을 보듬고 받아들이는 것-그 새살을 틔우기 위해 수많은 흉터가 남았다. 나의 그림은 그런 흉터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의 흉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른 기억의 양분을 만나 다른 형태와 색채를 덧씌워낸다.





애매한 기억과 모호한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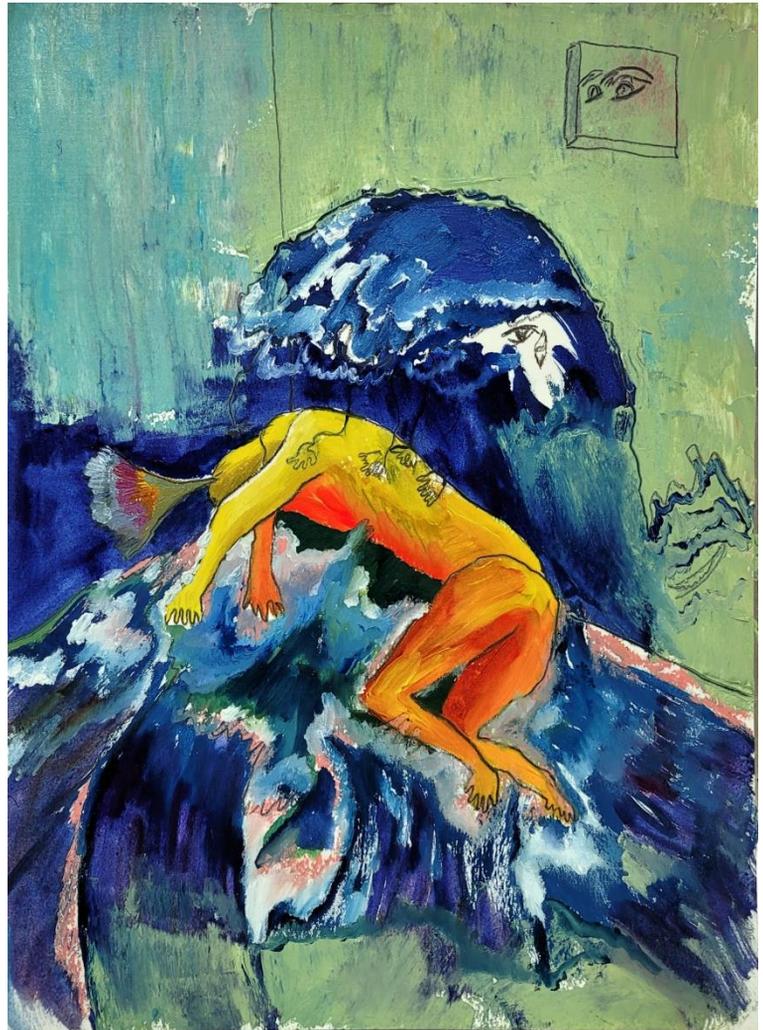
기억은 확실하지 않다. 지나간 일련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억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감정은 기억을 반영하며 시시각각 다른 색과 촉감을 드리운다. 가변적인 감정은 기억 속에 침투하여 매번 다른 마음의 방을 만들어낸다. 그 방은 주체와 배경이 서로 와해되며, 스러지는 장면의 연속을 만들어내고, 적층되는 기억의 감정들을 반영한다. 하나의 이미지에 다른 이미지가 덮혀지고, 또 다른 이미지가 덮히며 새 기억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또 다른 감정을 낳는다.



마음의 방과 또 다른 창문

마음의 방이 있다. 마음의 방에 내가 누워있다. 그것은 나이면서 나를 마음 속으로 다시 형상화한 나의 분신이다. 바닥에 물이 밀려와 나를 방구석으로 몰아간다. 녹아내리는 벽을 비집고 나온 평안과 절망의 파도가 나를 벽속으로 밀고 들어가려 한다. 음습한 우울이 타고 녹아내리는 벽은 바닥과 나의 몸에 녹아내려 표피를 발라낸다. 그것들은 손을 내민다. 나를 어루만지며 함께 땅 속으로 들어가자고 유혹한다. 모든 것은 나의 상상으로 만든 감정의 허상이었다. 나는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일어날 수 없는 나의 나약한 몸 똥아리. 그 마음이 하릴 없이 풍경 속에 잠식된다.

방 한 칸에 창 밖으로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머물고 있다. 관조하는 눈. 그것은 나를 직접적으로 구원하지 못하고 그저 연민의 눈으로 나를 응시한다. 또 다른 나의 메타적 자아. 그것은 나를 건드리지 못한 채 창 밖에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물 속으로

나는 결국 우울의 허상인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나의 마음 저 아래로 떨어져 갔다.
내가 간신히 누워있던 자리 주변에 거대한 물줄기가 솟구치더니 이내 나를 덮친다.
내가 간신히 덮고 있던 이부자리는 구멍뚫린 땅 밑으로 떨어지면서 하릴없이 나와 함께 부유
한다.

나는 떨어졌다.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두렵고 고요한 심연의 물이 나를 숨막히게 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려 헤엄쳤지만
버둥대며 심연의 물속에서 살고 싶었지만.

눈물이 공깃방울과 함께 흘어졌다.

나약한 자화상. 나약한 사람들. 나약함.

나는 나약한놈이었다.

훈련을 하다가 빠긋하면 항상 나는 다치고 남들보다 똑같이 운동해도 나는 어딘가 아팠다.

밤을 잘 새지 못했고 밥도 많이먹지 못했다.

그런 나는 그저 나약한 놈'1' 이었다.

나약함이란 약한게 아니다.

스스로에게 약한 마음, 무른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때로 그런 생각을 해본다.

아주아주 나약해지면 이 어려운 세상을 조금더 유연하게 지내보낼수 있진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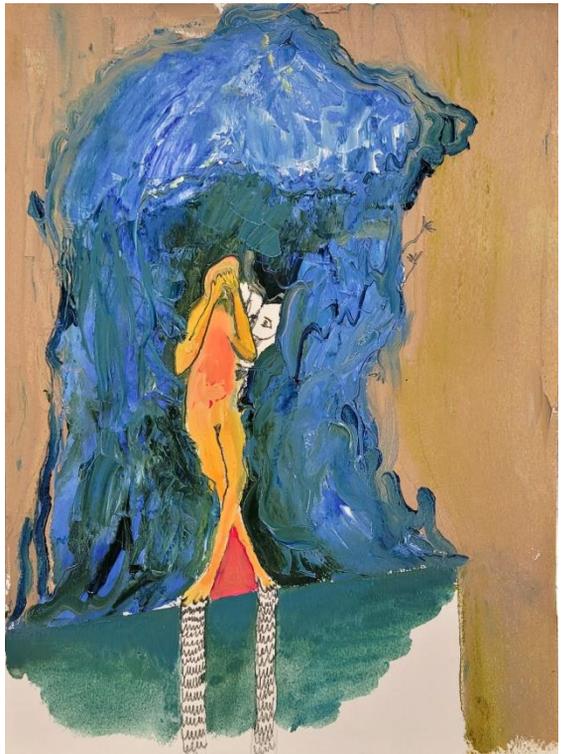
아주아주 나약해지면 어떤 면죄부를 받아서 세상에 필요없는 사람이 되어,
쓰임이 없어지진 않을까? 그럼 보다 자유로워 지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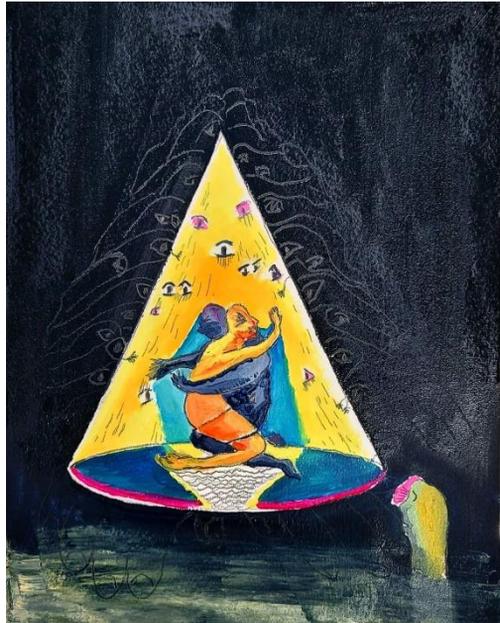
나약한 나 나약한 엄마 나약한 동생

나약한 친구 나약한 연인.

온 세상이 나약한 사람들.

나의 세상.





이제 나는 나의 절망과 억압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것과 화해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정신과 선생님께서 쉽게 말한 것 처럼 그것을 용서하거나 잊을 수 없었다. 내가 겪었던 절망도 이미 나 심연에 일부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것을, 그 기억들을 받아들이고 크림 같은 다른 아름다운 기억들을 위에 덮어주기로 하였다. 언젠가 나의 망각의 축복 속에, 이것들이 서로 뒤섞여 희미해 지도록.

마음이,

고여있고 억눌렀던 나의 마음이

활짝 폭발한다.

드디어, 피할 수 없던 고통과 역경이 끝나고,
그 공포를 이겨내고,
저 심연 밑창을 기어다니던 시간이 끝나고,

나의 마음은 드디어 폭발한다.

안에는
퍼런 파도와 붉은 파도가,
밖에는
파아란 곳이 충돌한다.



작가약력



박현호(HYUNHO, PARK 朴 玄鎬)

학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대학원 재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우등)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영상매체연합전공 졸업(우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직이수
서울대학교 ROTC 54기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예원학교 졸업

Education

M.F.A. student in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B.F.A. in Painting, Double major in Media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Curriculum for Teaching Profession in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ROTC).
Seoul art high school, Seoul
Yewon school, Seoul

개인전

2021 크림같은 재앙들, VUTTONS 갤러리, 서울
2016 세가지 기반들, Mythtake Museum, 청평

단체전

2021 갤러리 VINCHI 전시 (9월 예정)
2021 갤러리 RASA 전시(8월 예정)
2021 서초문화재단 전시 (8월 예정)
2021 아티커버리 탐9 작가, art1, 서울
2020 ART ON THE LINE전, 서울대학교 동문회, 서울
2020 베리타스 개관전, 베리타스 갤러리, 서울
2020 SNU@ART전, 서울대학교 현기순홀, 서울 등 다수

수상

2021 아티커버리 탐 9 작가, art1, 서울
2014 Brighton artist awards, Brighton University, U.K.



www.hyunho.art

박현호 Portfolio